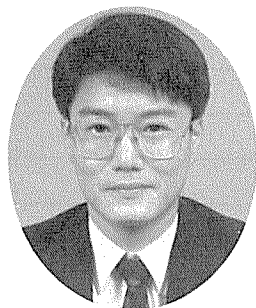




특 집

OECD가입의 효과와 기업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 욱

1. 가입의 의의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12일 OECD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공식 기탁함으로써 세계에서는 29 번째,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의 정책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OECD측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우리의 OECD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무역상대국을 회원국으로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호주를 능가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최근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나 체코등에 비해 두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GNP는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무역규모는 2,602억달러로 세계 12위, 그리고 1인당 GNP는 10,076달러로 이미 일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바, OECD를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그와 같은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경제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전자·자동차등 주요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경제로서는 새로운 대외경제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상대이자 협력상대인 선진회원국들의 대내외정책방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그에 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환경, 노동, 경쟁정책, 국제투자등 최근 공론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의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OECD 가입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향후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선진국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할 때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OECD가입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경우, 폐쇄적이고 수동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국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우리의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주장은 OECD가 추구하는 모든 목적 및 활동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선진화와 세계화의 취지에도 잘 부합한다는 데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OECD가 1961년에 창설된 이래 30여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경제발전애 공헌한 바 크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OECD는 회원국 상호간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를 확산시킴으로써 지구촌

의 모든 국가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OECD의 활동이 곧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선진화 및 세계화의 이념과 철학에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OECD 가입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가입협약의 결과 및 평가

OECD 가입신청서 접수후 OECD 이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협약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우리는 OECD 산하의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위원회(CMIT),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보험위원회, 해운위원회, 재정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농업위원회, 경제발전검토위원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무역위원회등 4개 위원회에 의한 정책 및 제도전반에 관한 검토를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OECD 사무국측과의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95년 11월 해운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96년 7월 CMIT 및 CIME의 제2차 합동심사를 마지막으로 위원회별 심사 및 검토를 모두 종료하게 되었으며(〈표 1〉 참조), 그 결과에 기초하여 마침내 지난해 10월 11일에는 OECD 이사회에서 가입초청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표 1〉 위원회별 심사 및 검토일정

심사대상위원회 (7개)	검토대상위원회 (4개)
해운(95. 11), 보험(95. 12) 금융시장(96. 2), 환경(96. 5) 재정(96, 6), 자본/투자(96. 7)	농업(95. 11), 경제발전검토(96. 3) 노동(96. 4), 무역(96. 5)

註 : () 내는 심사 및 검토회의 개최일자임.

우리나라가 OECD 가입협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분야는 CMIT와 CIME의 공동심사가 있었던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CMIT와 CIME는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자본이동, 그리고 서비스교역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지불 및 송금등을 관장하면서 전통적으로 OECD가입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96년 4월과 7월에 양위원회로부터 1, 2차에 걸친 두차례의 공동심사를 받았다. 동 심사에서 우리는 장기자본이동 및 실물거래와 연관이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되, 현금차관 및 채권시장에 대한 완전자유화는 내외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안정되는등 국내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우려가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재정증권등 단기금융상품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자본의 경우에도 시설채 도입용 장기차관, 무역신용등 실물거래와 연계되거나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부문을 채권이나 무보증장기채 또는 전환사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그러나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 거래위험도가 적은 부문은 거시경제안정이 지속되거나 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에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분야의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합병 및 인수(M & A : Mergers and Acquisitions)형 직접투자의 자유화 문제는 부분개방업종을 포함한 자유화 업종에 대해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한 우호적인 M & A만을 허용했다. 한편,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 금융부문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자본이동 및 금융산업개방은 CMIT/CIME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 및 자본자유화 분야에 있어서는 자본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 및 장기자본이동을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자유화를 관철 시킴으로써 국내거시경제의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고 금융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및 자본자유화 분야의 심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과 「외환제도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동 분야의 자유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양대 자유화규약의 수락율은 약 65%로 기존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89%)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OECD 가입국의 자유화 수준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서비스분야등 경상무역외거래에 있어서는 OECD 기존 회원국의 자유화율이 8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2%의 수준을 보임으로써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자본이동분야에 있어서는 55%의 자유화율을 기록함으로써 OECD 평균인 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무역 및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유지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환경분야 심사에서 OECD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는 바, 우리측은 우리의 환경보호정책 및 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구하고 기후변화협약에서는 OECD 가입후에도 국내 여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환경관련 OECD 규정의 수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되었으며, 다만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수입인증절차와 기존 화학물질 목록이 OECD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과 기밀영업정보 및 지적권 보호조치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의 검토결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이미 확보한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 고수되었으며, 앞으로의 WTO등 국제협약에서의 개도국 지위 여부는 부문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정화물제도를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개방계획을 밝힘으로써 큰 논란없이 심사가 종결되었고, 재정위원회의 심사에서도 OECD측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체계를 매우 높게 평가했을 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련 법·제도·관행의 정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진척상황을 OECD측에 지속적으로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OECD 가입의 효과

(1) 긍정적 측면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환경, 경쟁정책, 노동, 국제투자, 부패방지등 향후 WTO체제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주요 국제경제현안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 바, 그와 같은 이슈의 논의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향후 국제투자문제를 규율하게 될 다자간 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이미 구체화 단계에 있는 바,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동협상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늦게나마 그 논의과정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새로이 대두되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신장됨에 따라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쌍무적 통상압력도 OECD 내에서의 협의를 통해 완화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WTO 수준에서 벗어난 선진국들의 과도한 개방 요구나 그들의 폐쇄적 또는 일방적 무역조치를 OECD라는 다자간 협의무대로 유도하여 논의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OECD의 기본이념인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철폐됨에 따라 우리의 제반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OECD산하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산하기구에서 각 회원국의 통상, 재정, 금융, 과학기술등 각종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므로, 이는 우리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운용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위원회는 그와 같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규제정책의 철폐를 권고하게 될 것인 바, 그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에게도 안정적인 예측능력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보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경영의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미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제도가 선진화되고 이는 곧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독과점체제가 해소되고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중심의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정책위원회나 무역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안전을 중시하는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의 환경기준과 규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소음공해방지제도등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의 환경여건의 개선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이나 고용관행 등에 있어서도 선진국형 노사관계법과 제도등이 도입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이 강화되고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와 기업인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정회원국이 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국내기업의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외국금융회사의 한국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와 같은 효과

는 우리의 OECD 가입전망이 확실시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바,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차입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포항제철, 한국전력, 산업은행등 정부관련 기관이 발행한 채권(Sovereign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채권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기업과 상품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그리고 해외건설수주의 확대를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국가들이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에 대한 구매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을 OECD 회원국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OECD 회원국들간에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관련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우리의 정책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매년 300여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세계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책건의자료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공급원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OECD는 그와 같은 자료들을 관련회의 및 범세계적 정보전산망(OLIS : On-Line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정회원국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원자로의 작동모형에 관한 최신자료를 비롯해 1,700여종의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

나라, 인터넷 등 국제 컴퓨터망을 이용한 자금거래의 포착방법, 통신혁명과 관련된 조세문제, 스왑(Swap), 옵션(option) 등 신종 금융상품관련 소득의 조세취득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원활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체도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의 각종 전문위원회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산하 26개의 위원회 및 각종 부속기구에서 연간 약 400여회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회의참가를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야에 걸쳐 직접 선진국 관리들과 접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식견과 시야를 넓히게 되고, 이를 국내정책의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및 국익을 신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OECD 국가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등 외교·안보측면에서도 커다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담적 측면

한편,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OECD에 가입하게 되면 OECD가 요구하는 각종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으로서 더욱 다양하고 격높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것인 바,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담은 우리의 노력여하

에 따라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상가능한 각종 부담사항들을 적시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OECD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서비스거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의 준수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제수준보다 훨씬 높은 국내 금리수준이나 국내금융기관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폭넓은 금융 및 자본자유화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외 금리차가 큰 현상에서의 완전한 자본자유화는 단기투기성자금(hot money)의 대량유입으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 상승 및 환율절상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금융산업의 낙후된 경영기업, 전문인력 부족, 부실채권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외국금융기업에 의한 시장잠식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OECD측과의 협의결과에 의하면 OECD 가입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의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투기성 단기자금부문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가능한한 배제하고 장기자본의 경우에도 실물거래와의 연계정도나 거래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가 실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외화유입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의 시장잠식 가능성 역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은행 지점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은행의 자산규모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보험사의 시장 점유율도 국내시장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그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금융 및 자본이동 분야 외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문제가 바로 우리의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한 문제로서, 만약 개도국 지위를 OECD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 감축 및 이산화탄소 사용량의 감축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결과에 의해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이미 확보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에서도 OECD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의무는 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개도국지위유지는 앞으로도 계속 쟁점사항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흔히 부담사항으로 거론되는 문제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의무와 분담금 납부의무를 들 수 있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GNP의 0.7%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형태로 개도국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분명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개도국 원조는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진출과 경제협력의 강화차원에서 대개도국 원조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에 OECD 연간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당해연도로부터 최근 3년간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96년 기준으로 2억 6천만달러에 이르는 OECD 전체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480만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480만달러는 원화로 약 38억원에 해당되는 바, 우리의 경제규모나 우리가 OECD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추어 볼 때 큰 부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4. 기업의 대응방안

앞에서 설명된 OECD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OECD 가입은 우리기업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예상되는 변화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고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는 바, 이는 대부분 산업의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정당화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제 OECD 가입에 따라 경제 각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기업은 그로부터 혜택과 도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완화는 또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을 극심한 대내외적 경쟁상황에 놓이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경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냉엄한 경제현실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표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경영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경영전략은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비절감, 국내의 소비자 취향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연구의 적극 지원, 경영정보의 체계적 생성과 공개의 강화는 물론이고 투자자와의 관계개선 등은 앞으로 기업이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 가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폐쇄적이고 국내 중심적인 경영사고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앞으로는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생산직 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은 기존의 추세에 비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 향

상 및 전직훈련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인 바, 이는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협력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한계도 그만큼 확장될 것이며, 우리기업들은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완화로 부터 예상되는 극심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비자 위주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사회에 정착될 소비자신용정보의 공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청약철회제도등 소비자신용제고를 위한 각종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각종 상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OECD 가입에 따라 비록 전반적인 규제는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OECD 가입과 함께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환경기준의 급격한 상향조정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기업들은 머지않아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환경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은 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되풀이되어 강조되었듯이, OECD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금융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일부 금융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과 시련을 안겨주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과 자본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차입이자율도 낮아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왕성한 투자욕구에 따른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용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기업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혜택의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기업들이 그와 같은 기회를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및 환율절상등을 초래함으로써 다시 생산비용의 증대와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기업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금융 및 자본시장개방계획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 사실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와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도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에 대비한 환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등 새로운 금융여건의

도래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기업들도 환 및 금융상품 전문가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외환 및 금융자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금융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자금확보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적대적인 합병 및 인수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이고, 각종 리스크로부터 기존의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나 해외투자의 활성화 추세에 대비하여 외국의 투자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종기업간의 우호적 M & A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의 체계적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OECD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와 경쟁심화는 우리기업들의 상호경쟁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의 선진기업들은 우리의 협력대상일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힘겨운 경쟁상대일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선진기업과의 경쟁속에서 우리기업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전략을 추구할 경우 다같이 공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들 스스로가 공정한 상관행거래를 정착시키고 업계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